

정치 성향, 타고나는가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최근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정치 성향이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기질과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의 일부는 이미 우리 뇌와 성격 속에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약 30만 년 전부터 현대 인류의 형태로 진화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 역시 이 오랜 진화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의 차이는 유전적인 기질로 남았고, 오늘날에는 정치 성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낯선 것, 변화, 외부 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는 편도체(amygdala)와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고,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부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반면, 전두엽은 문제 해결, 계획,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

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에서 더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다. 위협을 피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반대로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탐색하는 개방성은 평화로운 시대에 유리하다. 말하자면, 진보도 보수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양 날개였던 셈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빅5 성격이론'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창의성, 상상력), 성실성(Conscientiousness, 책임감, 계획성, 규칙 준수), 외향성(Extraversion, 사교성, 활력,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우호성(Agreeableness, 협조적이고 친절한 성향), 신경성(Neuroticism, 불안, 감정 기복 등 정서적 민감성).

이 중에서 특히 정치 성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요소는 개방성과 성실성이다.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 환경 보호, 성소수자 인권처럼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 규칙, 전통, 가족구조처럼 이미 존재하는 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 이들에게 진보적인 변화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정치 성향이 100% 유전자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은 정치 성향의 약 30~5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이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 더 적합한 뇌와 성격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남은 부분은 환경과 경험이 채운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 논쟁이 격해질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나보다 강하구나"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해보자.

정치는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면의 표현일 수 있다.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의 표현일 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잃어버린 사슴을 찾아서:지록위마의 종막



기저 수첩
서예진 (정치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4일, 윤석열 정부를 반추하며 떠올린 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2022년 5월 이후 1060일간 우리는 지록위마의 세상에 살았기에, 지록위마의 세상에서 기자는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 반성해본다.

사슴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반지성주의가 독약처럼 퍼져갔다. 그동안 '주장'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진영에 따라 '날리면'이라는 탈을 썼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헌법의 상위 개념인양 굴었다. 파시스트라

고 부르기에 아주 좋은 '덕목'을 갖춘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 근무자의 이름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떠들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던 세상은, 결국 44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내린 바 없다"는 변명을 늘어냈다.

사실 이런 변명을 안 믿어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우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주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퍼트렸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금과옥조처럼 믿었다. 이것 역시 사슴을 말이라 하는 행위 아닌가.

많은 매체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주장을 비슷한 분량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

에서 기자는 탄핵 반대파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도 되는지를 내내 고민했다. 하지만 오랜 고민에 비해 실제 결과물은 미약했다.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매도하고, 야당이 하는 일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보도해도 됐을까. 진실과 허위를 나란히 놓는 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외면했던 건 아닌가. 잘못된 주장을 전하면서 상대방 주장을 병렬해 정쟁처럼 취급한 건 아닐까. 결국 기자도 관성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지록위마의 세상에 일조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작지만 집요한 통증이 내내 남는다.

이제 대통령은 파면됐고 봉황기는 내려졌다. 하지만 이 고민은 앞으로 안고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말로 '변신'했던 사슴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8일 (음 3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48년생 동료들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60년생 뒤늦은 풍화 가인에 빠져들어 날 새는 줄 모른다. 72년생 외국어를 공부하여 정보를 얻는 기쁨이. 84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 소** 37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49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61년생 타인의 실수가 달갑지 않다. 73년생 부부가 화합하여 뜻을 이룬다. 85년생 병이 왔으나 약을 주니 심부름 실망은 마라.
- 호랑이** 38년생 주식 투자가 잘되어 이득 발생. 50년생 일이 잘 풀리는 듯하다가 오후에 꼬인다. 62년생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74년생 사기꾼들은 먹잇감을 보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다. 86년생 여행계획이 생긴다.
- 토끼** 3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51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63년생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얻음. 75년생 집안 산소정리에 정성을 다하자. 87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돈이 들어오는 하루이다.
- 용** 40년생 정확한 일 처리를 위해 깔끔한 문서로 작성. 52년생 애쓰고 돌아선 상태는 돌아오지 않는다. 64년생 주식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한다. 76년생 선물을 받기 보다 주려는 마음을. 88년생 맥이 빠지기 시작하면 보람이 없는데.
- 뱀** 41년생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53년생 심신이 고달프나 재물을 얻는다. 65년생 오후 5시 지나서 운전 조심할 것. 77년생 하던 일에서 영입실적이 나타나 소속으로 들어온다. 89년생 돈으로 베풀 능력이 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 말**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떠나라. 54년생 말은 마음을 담은 것이니 곱게. 66년생 집 안 청소를 돕도록. 78년생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나무가 살아나겠는가. 90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인생사 허망하다.
- 양** 43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는 날. 55년생 동료와의 관계를 잘 맺도록. 67년생 어제의 친구에게 험담하지 않도록 자제. 79년생 집안싸움에 관여하여 옳고 그름을 묻지 마라. 91년생 운기가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 원숭이** 44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56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부터 사야 순서야 나. 68년생 남에게 말 잘주어서 나도 손해. 80년생 시력이 약화하니 동서구분 이 어려울 듯. 92년생 인생에서 물러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
- 닭** 45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7년생 병도 약도 내 마음에 있다. 69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을 오늘 알게 되어 냉장고를 청소. 81년생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93년생 집중은 성공의 시작이며 비결이 될 것이다.
- 개** 46년생 짙은 보라색이 행운을 줄 것 같다. 58년생 아름답고 맑은 시를 써보니 희망이 일어난다. 70년생 걱정이 해결되고 고생한 보람이 오후에 있다. 82년생 노당익장(老當益壯)이라 했으니. 94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 돼지** 47년생 개나리를 보고 봄을 느끼지 못하니 서글프다. 59년생 오늘은 현상 유지로도 다행. 71년생 저녁 회식에서 과식은 조심해야 할 듯. 83년생 알지 못한 것을 어찌 깨달으려 하는가. 95년생 놀기보다는 일을 찾아서 에너지를 얻어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자손 복덕

조상들은 태교를 중시 여겼고 태몽에 대해서도 남달리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 특히 자손의 번성과 창성을 위해 발달한 신앙이 복두신앙이다.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자손이 무탈하게 태어나 성장기를 보내고 총명함과 건강함과 무탈함이 함께 하여 자손까지 창성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함께 해결되는 것이 복두칠성연명경에 잘 함축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 이야기에 그는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으므로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

이미 천오백 년 이전에도 칠성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칠요'란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의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함께 해와 달을 합친 일곱 별로서 칠요성 이라고 했다. 사주명리학의 음양오행학이 자리를 잡기 이전부터 밝게 빛나는 천체들에 수성이니 목성이니 이름을 붙여 지구와의 상호 상응하는 에너지 체로서 인정해왔던 것이니 여기에 주목한 것이 점성학인 것이다. 이는 서양에서도 사주명리학에 대응하는 운명예측으로서 점성술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대소 사찰에 가보면 산신각이나 칠성각 또는 독성각이 따로 있지만 삼성각(三聖閣)이 있고 삼성각 안에는 산신과 칠성과 독성이 함께 모셔져 있다. 그 가운데 위치에 모셔져 있는 것이 칠성이다. 그만큼 칠성 신앙을 중시했다는 의미이다. 칠성경으로도 불리는 복두칠성연명경은 중국에서 지어져 도교적 신앙도 함께 녹여져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복두칠성연명경 서두에 나오는 태상노군(太上盧君)의 노군이 노사나불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니 칠성 신앙이 불교에 녹아든 모습으로 이해해도 가할 것이다. 무탈을 바라는 민간신앙의 칠성 신앙은 훌륭한 자손의 점지와 성장에 효험이 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4	1	9
		1			
		5		9	
5	6				9
	2				6
	1				8
2			6		8
					9
1		9	8		6

8			2		6
6			1	9	
					5
7	5		3	2	
		4	7		6
		1			
9			1	7	
	7			2	

9	7	2	9	8	6	8	1
1	5	8	6	7	9	8	2
4	8	1	6	9	7	5	2
7	8	2	9	9	2	1	6
1	9	9	8	2	6	2	7
2	6	2	1	7	8	9	9
8	2	9	6	2	1	9	7
8	7	2	9	8	1	6	9
6	9	1	9	7	8	2	8

9	1	6	2	9	8	8	2	7
8	8	7	9	2	1	2	9	6
9	2	8	8	6	7	1	8	9
8	6	9	1	9	2	7	8	2
2	9	8	7	2	6	9	1	8
1	7	2	8	8	9	9	6	2
7	8	6	1	9	2	7	9	
6	9	1	2	7	2	8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